

지은이 이혜진

한때 잘나가던 놀이치료사. 도서관을 집처럼 드나들면서, 그림책에 흠뻑 빠져 심장이 벌렁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지으며

하하하, 하도 웃어서 실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소리로 웃다 보니 웃음소리만 들어도 제가 왔는지 안답니다. 정작 재미없는 사람이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세상 어디든 웃음소리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웃음소리

초판 1쇄 | 2022년 9월 21일
지은이 | 이혜진
제작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발행인 | 이현숙
펴낸이 | 최문성
펴낸곳 | 도서출판 달구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4안길 28, 1층 (범물동)
Tel) 070.4175.7470 Fax) 0504.199.0257
Email) dalgubook21@naver.com
Homepage) www.달구북.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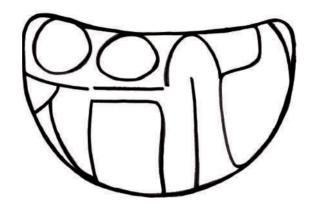
출판등록 I 제2022-000001호

© 2022, 이혜진

ISBN 979-11-90458-15-3 (77810)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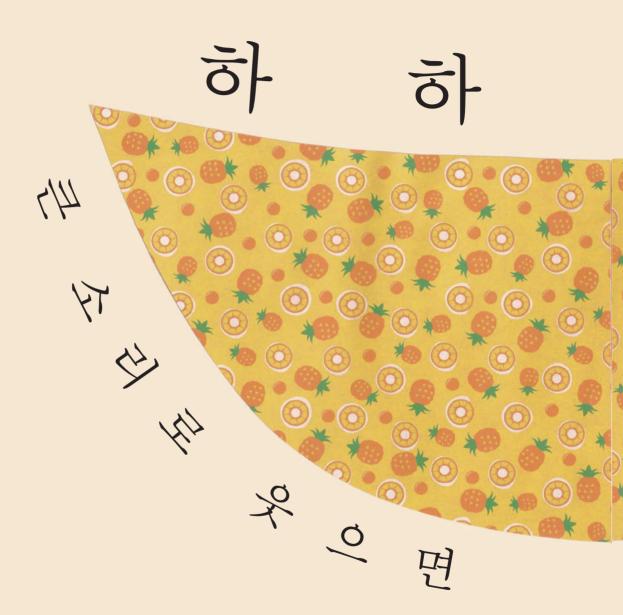
본 도서는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1관 1단] 사업'의 후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달구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글·그림 이혜진





궁

호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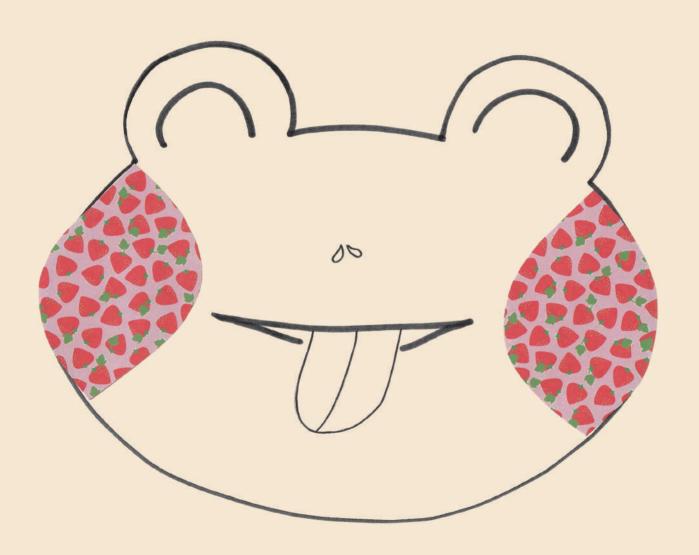
손으로 가리고 웃으면 수줍습니다.



히히히

개구쟁이처럼

유쾌해집니다.



 亳对 宣母 4 兴.

헤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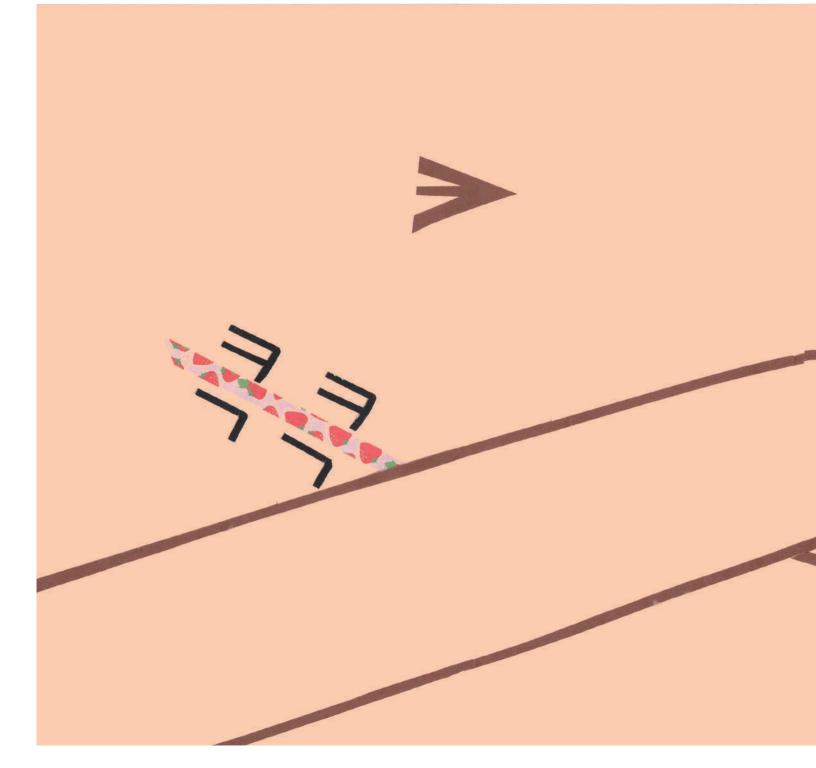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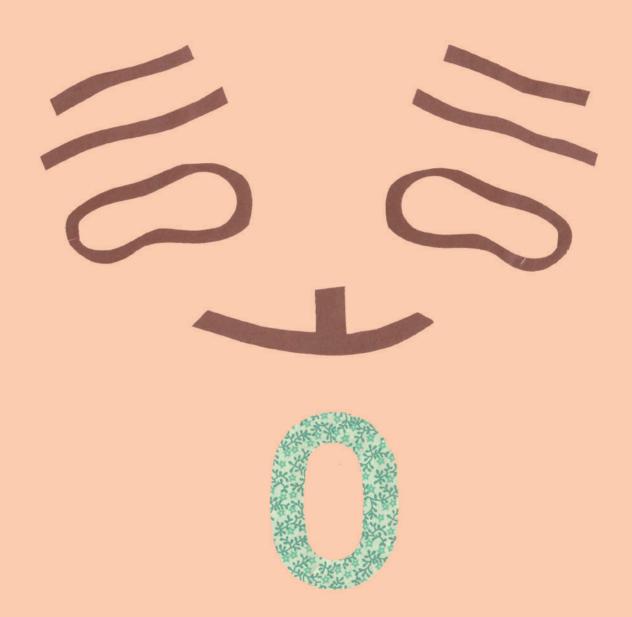
한 번만 봐 달라고 징징거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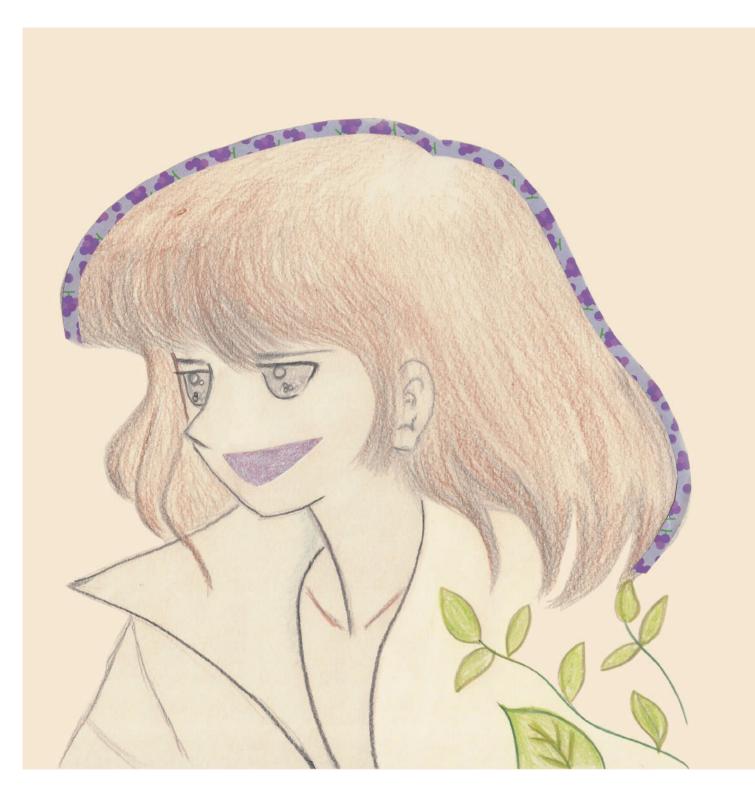
웃음을 참으면 이렇습니다.



홍홍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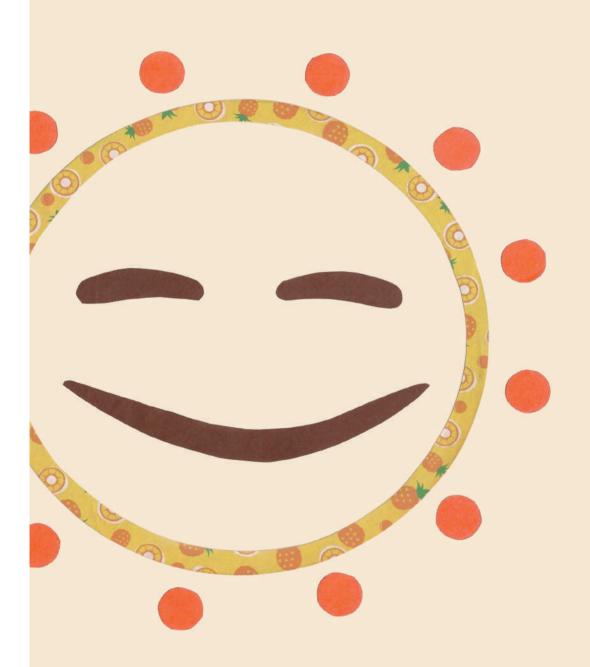
혼자서 웃자니

좀 머쓱합니다.



利 利 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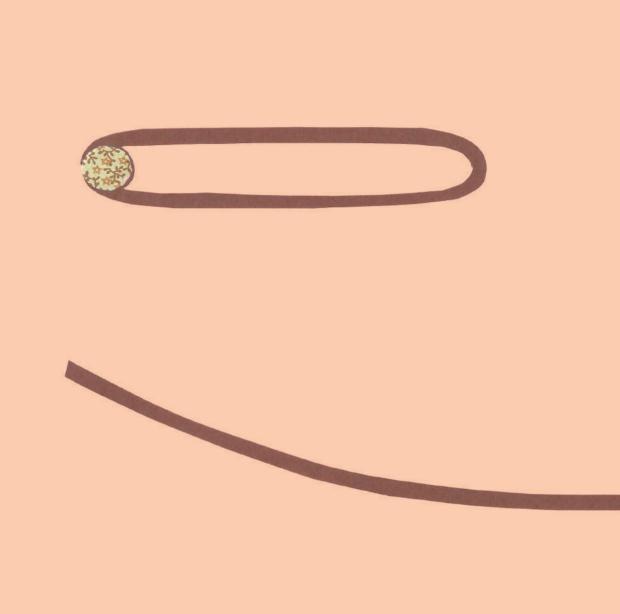
이렇게 웃으면 만화 주인공이 됩니다.



A)



미소만 지으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헛헛 %

눈치 보면서 웃습니다.

헥





강아지들은

이렇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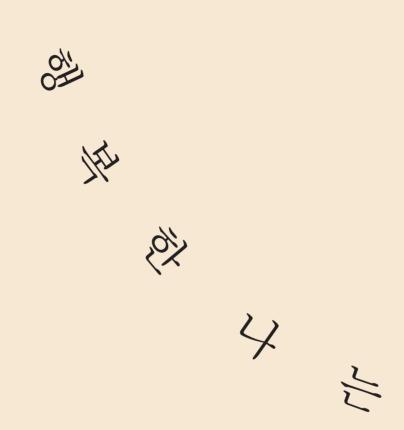


곱이 새면 콧소리가 됩니다.



하하





会 全 左

